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과제 소개

구분	과제명	과제책임
수시 연구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발코니 활성화 방안	조상규
	합리적 건축산업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구축 방안 연구	김은희
현안 연구	수요맞춤형 창업지원시설 조성방향 연구	김해리
	건축외관 정보 구축을 위한 딥러닝 적용방안 연구	손동화
	감염관리를 위한 시설조성 개선 방안 수립	방재성

수시연구

①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발코니 활성화 방안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 전 세계가 충격을 경험하고 있다. 감염증의 전파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건축과 도시공간의 기능과 역할에도 대 전환과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다.

이러한 비대면, 언택트 시대에 재택근무 등으로 근무형태가 변화하고, 교육시설 전반의 등하교에서 온라인 학습이 시행되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택배 등 배달을 통한 인터넷 쇼핑 등 언택트 소비문화가 확산되고 원격 진료에 대한 니즈가 늘어나는 등 휴식을 위한 '집'이 아닌 사무실 등 다양한 기능이 부여되는 '올인룸'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비대면 지침 이행을 위한 도시 밀도의 설정을 포함하여 기존의 주거공간을 초월하는 공간서비스 창출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집에서의 거주시간이 확대됨에 따른 협소한 주택 면적과 공원 등 옥외공간의 방문과 이용이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발코니 조성을 통한 활용성과 보급 활성화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대안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 주거형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의 폐쇄적 공간구조를 발코니의 구성과 활용을 통해 개방되고 친자연적인 외부공간을 제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주거양식으로 탈바꿈시키고자 한다.

조상규

② 합리적 건축산업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구축 방안 연구

2008년 「건축기본법」이 시행됨으로써 기존의 '건설' 중심의 제도적 여건으로부터 사회적·문화적 가치로 인

식되는 '건축' 기반의 제도적 환경이 형성되었다. 특히 2014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시행으로 건축서비스 활동도 산업적 가치로 해석할 수 있는 패러다임 전환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건축의 사회적·문화적·산업적 가치 구현을 위해서는 건축물 생애주기 즉, 건축물 조성 및 사용과정을 아우르는 개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고 이에 근거한 일관된 정책 수립이 요구되며 그 기초자료로서 신뢰할 수 있는 통계가 생산되어야 한다. 그러나 「건축기본법」의 '건축' 개념에 대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현행 건축물 조성 관련 법령에는 산업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고 범위가 혼재되어 있다. 건축정책 또한 건축물이라는 공통의 결과물을 위한 일련의 전략으로 대응하기보다 개별법에 따라 분절되어 연결성이 부족하다. 이러한 현상은 통계 생산 양상과 직결된다. 대부분의 건축산업 통계는 '건설산업'에 집중되어 있어 최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건축서비스나 유지관리 산업 통계는 미미한 상황이다.

이 연구는 기획 및 설계로부터 시공 후 사용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건축행위로 생산되는 부가가치 산업을 건축산업으로 규정하고, 요구되는 필수적인 통계와 이의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건축환경에서 주관적이고 직관적인 특정 집단의 주장에 앞서 객관적인 정보분석을 토대로 보다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건축정책 수립과 실행의 출발로서 이 연구의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고자 한다.

김은희

현안연구

① 수요맞춤형 창업지원시설 조성방향 연구

2020년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예산은 총 1조 4,517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36억 원(29.8%) 증가하였으

며, 이에 따라 창업지원시설은 급격한 양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창업지원시설 조성 및 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시설 조성에 따른 실태 파악은 미흡하여 공급 위주의 정책 추진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는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창업지원시설 관련 정책 사업 및 시설 조성 실태, 시설 이용 및 수요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수요 기반의 창업지원시설 조성방향을 모색하고, 관련된 후속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창업지원시설 조성 및 운영 관련 정책 사업 실태 분석,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주요 창업지원시설 사례별 세부 기능 구성과 공간 배치 특성 및 설계 주안점 등 시설 조성 실태 분석, 창업지원시설 입주기업(이용자) 인식 설문조사를 통한 공간 이용 및 수요 실태 분석의 세 부문으로 구성된다. 일련의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수요맞춤형 창업지원시설 조성방향과 후속과제는 다음과 같다.

창업지원시설의 개별 업무공간은 기업 성장주기에 따라 개방형·폐쇄형 보육실을 혼합한 공간 계획 및 배치가 필요하고, 회의실·OA실·휴게 및 편의시설 등 공용공간은 개별 기업이 전용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각 공간에의 접근 및 이용 편의 차이를 최소화 한 동선 계획을 해야 한다. 더불어, 시설 계획 및 설계 의사결정 과정에서 설계자 및 창업생태계 관계자 간 협의가 매우 중요하며, 양질의 시설 조성 및 사업 추진 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창업생태계의 특성과 시설 지원의 중요성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이해를 돕는 교육이 필요하다.

향후, 창업지원시설 규모별 계획 특성 심층 분석을 통한 보다 세부적인 공간 디자인 방향 제시, 이용자 뿐 아니라 운영자 입장에서 공간 이용 및 수요 분석을 통한 시설 개선방향 제시, 학제간 연구를 통한 창업지원시설 계획 특성과 업종별 입주기업성장효과와 상관관계 분석 및 시사점 고찰 등의 후속과제를 추진하여,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의 수요맞춤형 창업지원시설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해리

② 건축외관 정보 구축을 위한 딥러닝 적용방안 연구

2013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현재 각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22개의 국가중점 데이터와 약 38,396건의 데이터(2020년 8월 기준)는 공통 개방 기준에 따라 공공데이터 포털(<http://www.data.go.kr>)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건축도시 분야의 공공데이터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 건물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 건축데이터 민간개방시스템, 한국건축구정e시스템, 지자체 제공 공공정보 등의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이나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양질의 데이터를 구축·개방하고자 하는 정부부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들이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는 매우 한정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특히,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서 제공되는 인허가, 건축물대장, 폐말소대장 등 건축행정정보는 2차원 중심의 정보로 한정되어 있어, 데이터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다.

이에 시간·비용·인력을 최소화하면서 기 구축되어 있는 방대한 양의 건축행정정보와 BIM정보 등을 3차원 공간정보로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고도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건축물 외관정보의 경제적·효율적 구축을 위해 최근 대두되고 있는 인공지능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딥러닝 기반 영상 식별 기술을 이용한 건축 외관정보 구축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사례 검토를 통한 딥러닝 기술수준 검토 및 적용방안을 살펴보고,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건축물 외관정보 식별 및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 구축된 3차원 공간지도의 이미지 정보를 활용할 뿐 아니라 시간·비용·인력을 최소화함으로써 건축외관 정보를 구현하기 위한 기초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손동화

③ 감염관리를 위한 시설조성 개선 방안 수립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하여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인명피해를 주고 있다. 더불어 사회적, 경제적 피해도 장기화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질병관리본부의 적절한 대책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 규모는 작으나 지속적으로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다. 2월 대구, 경북지역 확산 이후 5월과 8월 수도권에서 재확산되어 안정과 확산이 반복되고 있다.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 이전으로의 복귀는 요원한 상황이다. 감염병 장기화와 재유행, 향후 유사 감염병 확산을 대비하여 감염병 관리 및 치료에 필요한 주요시설의 개선 및 확대를 위한 대응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감염병 관리시설의 조성 운영을 위해서는 의료, 보건, 방역정책 및 계획이 근간을 이루되 재난, 도시, 건축계획(설계)과의 협력과 연계가 필수적이며 관련 영역의 정책, 계획, 사업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임시생활시설, 음압격리병실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치료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난 감염 관리 시설들의 안정적인 운영 및 개선을 위한 이슈 검토, 방향 정립을 토대로 향후 추진이 필요한 연구과제를 제안하였다.

감염병 대응 시나리오에 부합하며 관리시설 간 위계와 역할 정립에 기반한 '선별진료소 유형별 시설 조성 기준', '국공유 자산을 활용한 생활치료센터 확충 및 시설개선 방안', '임시주거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재난과 감염병의 상시화 시대를 대비하여 장기적으로 '감염 취약시설(다중이용시설 등) 개선방안', '재난시대 건축 관계법령 개정 방향' 연구 등 일상의 건축 개선을 위해 필요한 기초 연구와 '공공건축물과 도시 오픈스페이스의 탄력적 활용에 대한 연구' 등 공공의 공간과 건축 이용방식 전환을 위한 연구 등이 필요하다.

방재성

2020 제1차 DIT 워크숍 'Come on DIT' 개최



news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지난 7월 22일(수)부터 25일(토)까지 4일간 '2020 제1차 DIT 워크숍: Come on DIT'를 개최하였다. LH, 군산 지역 스타트업 회사인 LMO와 공동주최한 이번 행사는 군산여고 앞 방치된 목조주택을 리모델링하는 폐건물 재생 프로젝트로, DIT 시공에 관심 있는 참가자를 모집하여 진행되었다.

워크숍은 '커뮤니티', '안전', '재미', '환대', '문화'의 키워드를 담아 프로그램을 구성했으며, 손으로 직접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부터 폐건물 재생·일본식 가옥 복원에 관심을 가진 사람, 직접 시공해보고 싶거나 현장 경험을 쌓고 싶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폐건물의 담장과 마당, 툇마루 등을 리모델링하였다.

이에 스스로 작업하는 'DIY(Do It Yourself)'에서 함께 만드는 개념을 더한 'DIT(Do It Together)'를 통해 서로 단절된 상태로 작업을 이어가는 건축주와 설계자, 시공자, 사용자가 함께 팀을 이뤄 하나의 공간을 완성하면서 해당 공간과 지역에 대한 애정을 키워가는 시간을 만들었다. 또한 단순히 기술력을 높이는 기술자 양성 교육이 아닌 생활 속에서 쉽게 활용가능한 기술 습득을 통해 MAKER 문화를 확산하는 기회로 삼고자 했다. 특히 오랫동안 폐허로 방치된 유휴공간을 재생하는 과정에서 의(衣·공동키트), 식(食·공동식사), 주(住·공동숙박), 그리고 공동 노동에 참여함으로써 로컬 기반의 단단한 커뮤니티를 가능하게 했다.

로컬-리콜(Local Recall) 첫 번째 시리즈 '신제조업의 영민한 루키' 제1~3차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서울시립대학교 베타시티 센터와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이 공동주최하는 2020 세운 글로벌 포럼 '로컬-리콜(Local Recall) 첫 번째 시리즈'에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공동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였다.

로컬-리콜 첫 번째 시리즈인 '신제조업의 영민한 루키'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제조업의 위기를 직접 경험하고 대응하는 신제조업의 대표주자로부터 새로운 시도를 통해 신사업을 개척하고, 국내외 제조업을 진단하는 생생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기획되었다.

먼저, 7월 23일(목)에 진행된 1차 행사에서는 '제조업의 공진화를 위한 제안 : 삼영기계'를 소개하였다. 선박 엔진 부품을 생산하던 기업에서 샌드 3D 프린터를 만드는 삼영기계를 통해 업계 최고 기술을 가졌음에도 새로운 도전을 감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이미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주물 공정에 신기술을 도입했던 이유 등을 전하며, 이에 반해 작은 공정으로 나뉜 을지로의 산업 생태계에 대한 적용방안을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8월 5일(수)에 열린 2차 행사에서는 '혁신은 멀지 않아, 공구업계 콜럼버스 : 더하이브'를 선보였다. USB 충전식 전동 드라이버를 개발한 더하이브는 레드오션 시장인 전동공구 분야에서 특색 있는 제품으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기술에 대해 전혀 모르는 건축학도가 '2019 100 만불 수출탑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혁신의 실마리를 전하였다.

마지막으로, 8월 14일(금)에 개최된 3차 행사에서는 '세번째 팔을 창조하다 : B.A.T'를 알렸다. 디지털 패브리케이션 기술을 활용하여 건축과 예술 산업 등 창작·제조 분야에 적용 가능한 디자인·제작 솔루션을 제공하는 제작자 그룹으로, 인간의 복잡하고 섬세한 상상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디자이너의 이야기로 구성되었다.

제2, 3차 건축문화자산 강연회 ‘건축문화자산 가치 증진을 위한 설계자들의 이야기’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올해 건축문화자산의 가치 발굴 및 증진을 위한 보전·활용 과정에서 설계 단계에 초점을 맞춘 ‘건축문화자산 가치 증진을 위한 설계자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건축문화자산 강연회’를 진행하고 있다.

설계 단계는 건축문화자산이 지닌 역사·사회·문화적 콘텐츠를 이해하고, 이들의 가치와 의미를 보전 및 활용하기 위한 방향성을 마련하는 중요한 단계로, 강연회를 통해 옛 건물로서 다양한 건축문화자산이 가지는 물리적 한계점에 대한 방안, 고유의 콘텐츠를 담기 위한 설계기법 등을 공유하고자 한다.

이에 지난 7월 8일(수) 개최한 제2차 건축문화자산 강연회는 ‘대선제분 영등포공장을 통해 본

건축자산 보전·활용’을 주제로, RoA건축사사무소 김경도 소장을 연사로 초청하였다. 마포 문화비축기지뿐 아니라 대선제분 영등포공장의 디자인 콘셉트와 설계에 있어 기존 건축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가치를 담아내기 위해 어떤 점에 집중했는지, 그 과정에서 겪은 애로사항과 해결방안을 풀어냈다.

이어 8월 11일(화) 열린 제3차 건축문화자산 강연회는 ‘남산아래 투탑바위 마을 후암동, 마을을 집으로’라는 강연을 마련했으며, 도시공간협동조합 건축사사무소 이준형 소장과 함께 ‘후암동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후암동 마을 아카이빙을 수행하고, 후암주방·후암서재 등 공유공간을 조성 및 운영했던 과정과 경험을 소개하며, 프로젝트의 의미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news



제3~5차 건축서비스산업 세미나 '수요살롱'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건축서비스산업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논의하며, 발전 방향을 찾기 위해 '건축서비스산업 세미나: 수요살롱'을 기획하여 상·하반기 수요일에 맞춰 각각 3회, 총 6회에 걸쳐 살롱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7월 8일(수) 개최된 제3차 수요살롱은 '건축기록과 기획'을 주제로 사이트앤페이지 박성진 대표가 강연을 진행하고 한국건축사진가회 윤준환 작가, 성균건축도시설계원 김경완 실장이 함께 하였다. 건축서비스산업 측면에서 기록과 기획, 설계는 하나의 과정으로 봐야 하나 설계와 시공으로 이분화된 시장 구조에서는 기획 분야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기획 분야의 가치 형성과 시장 확대가 요구되며, 참여자들에 대한 배려, 저작권의 중요성에 관한 공감대, 운영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하였다.

7월 22일(수) 열린 제4차 수요살롱은 잘그린건축연구소 민현준 소장을 초청하여 '신산업 기획방향 - 친환경 건축설계'를 소개하였으며, 이어진 토론에서는 건축사사무소 티오피 이영호 대표 이사와 함께하였다. 민 소장은 잘그린건축연구소를 비롯하여 드웰링건축사사무소, COVER를 통해 그린리모델링 관련 연구와 친환경 건축설계 및

관련 자재 생산을 진행하고 있는데, 정부주도 사업 모델의 경우 기존 건축시장 구조의 패러다임 변화를 동반해야 한다고 전하며, 참여주체(개인) 중심의 지원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8월 5일(수) 진행된 제5차 수요살롱은 '도시 건축 기록 - 기록만으로 먹고 살 수 있는가?'를 주제로 서울시청 이성민 학예연구사가 김중업박물관 부지 기록사업,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아카이브 수집정책 연구 등 직접 진행했던 아카이빙 프로젝트와 큐레토리얼 실천 사례를 공유하였다. 발제 후 제대로랩 정귀원 대표와 함께 건축·도시 기록의 의미와 가능성, 건축서비스산업의 범위 등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5~11차 범죄예방환경연구센터 CPTED 관련 교육 세미나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범죄예방환경연구센터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소내 연구진을 대상으로 7회에 걸쳐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관련 교육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우리나라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와 서울시, 부산시 등 지자체에서 약 250여 개의 범죄예방 환경조성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범죄예방환경연구센터는 실효성 높은 연구 및 사업을 위해 전문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양대학교 하미경 교수, 무운건축사사무소 변문수 소장, 경찰대학교 한민경 교수를 강연자로 초청한 교육 세미나를 마련하였다.

먼저, 하미경 교수는 7월 6일(월)과 7월 20일(월) 개최한 교육 세미나에서 조명계획에 대한 이해를 통해 빛과 색의 차이를 인지하고, 구도심과 신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과 관련 사례를 소개하였다. 변문수 소장은 7월 20일(월) 열린 교육 세미나에서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인허가 절차를 설명하고, 이 중 범죄예방에 관련된 건축심의 현황을 통해 범죄예방능을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의 현실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한민경 교수는 여러 유형의 범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7월 24일(금) 노상범죄 특성 및 예방방안, 8월 20일(목) 범죄통계에 대한 이해와 활용방안, 9월 1일(화) 절도·폭력범죄 특성 및 예방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선(線)·면(面) 단위 근대문화유산의 이해를 위한 강연회 '지역성 강화를 위한 일본의 지역보존정책'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7월 28일(화) 대회의실에서 선(線)·면(面) 단위 근대문화유산의 이해를 위한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강연회는 경성대학교 강동진 교수가 '지역성 강화를 위한 일본의 지역보존정책: 면형(面形) 유산의 관점으로'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전쟁 이후 1950년대 일본은 급격한 도시개발로 인해 많은 역사문화자원들이 멸실되면서 이를 지켜본 지역주민과 지역전문가들은 역사문화자원의 멸실 및 훼손을 막기 위해 시민운동을 펼쳤다. 그 결과,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됨으로써, 역사문화자원을 문화재로 지정하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처럼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재 보존운동과 지자체·정부의 적극적인 제도화 노력 등을 통해 지역성과 문화유산을 지킬 수 있었던 요소를 소개하였다.

또한, 일본의 「문화재보호법」뿐 아니라 중요전통건축물군보존지구 제도, 「경관법」 제정, 중요문화적경관 제도 등 면형 유산 보존을 위한 제도화 과정과 사례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전했다. 이밖에도 문화재 보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본의 관광 슬로건인 'JAPAN Endless Discovery'와 연계하여 지역유산의 관광자원화를 꾀하거나 지역이 가지는 특수한 주제를 확장 및 발전시켜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는 등 일본의 면형 유산 제도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제3차 경관 릴레이 세미나 '당진시 경관자원조사'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8월 5일(수) 중회의실에서 제 3차 경관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올해 경관 릴레이 세미나는 경관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관련 이슈와 동향을 파악하고 경관 유형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추후 세미나 결과를 토대로 국토경관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자 한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여자대학교 교수이자 한국 경관학회 회장인 주신하 교수의 강연으로 진행되었으며, 2018년 여름부터 2019년 겨울까지 수행한 '당진시 경관자원조사' 영역을 소개하였다. 특히 당진시 경관 자원조사 영역은 지자체 전 지역을 대상으로 경관자원 조사를 수행한 첫 사례인 만큼 조사체계와 방법론에 대한 고민과 이를 통해 얻은 결과물 등을 공유하였다.

이에 체계적인 경관자원 기초조사를 위해 경관 자원조사, 경관구조분석, 경관의식조사, 관련 법규 및 유사사례 검토 등을 거쳤으며, 이를 통해 당진시 경관자원의 특성을 분석하고, 경관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여 당진시 고유의 경관가치를 재창출하기 위한 과정을 설명하였다.

또한 사업결과물인 일반·우수경관자원 자료집, 경관자원 위치정보 등은 경관계획수립, 우수경관자원 활용사업, 경관 관련 지구 지정, 관련 부서 활용방안 등에 활용될 예정이라 전했다.



공공건축 세미나 '설계자 관점에서의 공공건축'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8월 25일(화) 중회의실에서 '설계자 관점에서의 공공건축 - 우수 공공건축 조성을 위한 설계 주안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공공건축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최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사전 검토 및 설계공모 대상이 확대되고,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도입되는 등 공공건축 관련 제도와 정책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우수 공공건축 조성을 위한 설계 주안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공유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추진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연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공공 건축상 우수상과 건축문화대상 신진건축사 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는 스튜디오메조 건축사사무소 김태영 대표를 초청하여 연천 국공립 어린이집 설계공모의 준비과정과 젊은 건축가의 성장발판이 되는 공공건축에 대해 소개하였다.

김 대표는 설계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불합리한 시스템이 있었지만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지로 해결할 수 있었다고 전하며, 바람직한 공공건축 조성을 위해서 기획, 설계(공모), 시공, 사후관리 에 이르는 단계별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4회 auri 마을재생 세미나 '마도로스의 밤'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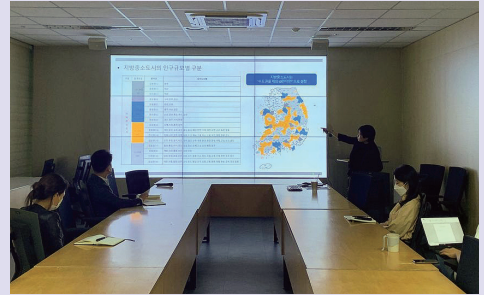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9월 16일(수) 인천 개항로에서 '마도로스의 밤'이라는 주제로 제4회 auri 마을재생 세미나를 열었다.

최근 항구도시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자원을 결합하거나 활용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순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지역 기반 산업이 발생하고 있다. 이 중 지역에 정착한 청년 주도로 설립되는 지역관리회사의 다양한 유형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번 세미나는 지역관리회사의 정착 과정과 운영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통해 지역관리회사의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기획되었다.

이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윤주선 부연구위원이 진행을 맡은 가운데 우리나라 대표 항구도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 지역관리회사 4개 팀이 발제자로 나섰다. 인천 개항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이창길 대표, 군산에서 영화타운을 운영하는 조권능 (주)지방 대표, 부산 영도에서 활동하는 김철우 RTBT Alliance 대표, 목포로 내려가 '관찰아 마을'을 시작한 홍동우 (주)공장공장 대표가 차례로 발제를 진행했으며, 이미 지역관리회사의 개념이 자리 잡은 미국,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에 맞는 지역관리회사는 어떤 모습인지 각 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팀별로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 지역에 대한 범위, 부동산과 금융 등 지역관리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 겪는 다양한 문제와 지역관리회사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2차 auri 지식강연회 '지방 중소도시 주거지 유형화'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9월 24일(목) 중회의실에서 제2차 auri 지식강연회를 개최하였다.

2011년부터 소내 연구원을 대상으로 지식 함양 및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지방 빈공간 재생'을 주제로, 지방 중소도시 주거지 전문가를 통해 지방도시 주거지 유형화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시재생 관련 정책연구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번 강연회는 도시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은 LH 토지주택연구원 김홍주 수석연구원의 '지방 중소도시의 공간위계와 주거지 유형화'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유하였다. 2018년 진행된 연구는 지방 중소도시의 현황과 특성, 주거지 유형 분석을 통해 효과적이면서도 사각지대가 없는 도시재생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에 김홍주 수석연구원은 대도시 중심의 기존 공모사업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지방 중소도시의 구조적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의 여건에 따라 차등화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지방 중소도시의 현황과 특성, 주거지 유형 분석을 통해 효과적이면서도 사각지대 없는 도시재생의 방향을 설명하였다.